

핀랜드의 공공도서관의 현황

헬싱키 공립도서관 부관장
에 일 라·윌 라 여사
(Mrs. Eila Wirla)

本稿는 1963年 9月 6日부터 Sophia에서 開催된 IFLA 第29次 定期總會의 公共圖書館分委會에 提出된 案件中 Finland 分을 全譯한 것입니다.

編 輯 室 白

핀랜드내에서 대중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문제는 이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발달, 도시집중화와 산업화의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많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도시의 공립학교, 병원, 자선기관 뿐만아니라 도서관의 건립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즉 건물과,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도서관 분관조적이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1962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도서관법으로 인하여 도서관 문제는 현실적 관심사로 되었으며, 각지의 핀랜드 신문들이 이문제에 관한 많은 기사를 취급하였다. 또한 많은 도서관들이 최근에 백주년개관을 축하했고 이러한 특별한 행사의 각종 축제로 그 도서관들이 대중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확대된 도서관계획으로 새로운 열람자들이 모이게 되었으며 개별지도, 독서상담, 전시 혹은 연구클럽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대중의 독서취미를 깊게 하고 증진시켰다.

도시와 산업중심지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까닭에 학교, 병원, 도서관 같은 사회,

교육기관을 관할하기 위한 이방면의 시정활동(市政活動)이 또한 확대되었다. 어렵게 증가된 과업중 새로운 기능에 알맞고 실제운영에 불편이 없는 건물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도서관에 관한한 작은 도시에서는 적당한 공동방이나 특별한 건물하나면 충분하지만 큰 도시에서는 큰 중앙 도서관과, 분관이 필요하다. 시외에서는 도서관 분관이 대개 학교, 유치원 혹은 아동상담소와 인접하여 공공사무실 건물속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서관이 공공 건물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건물의 후면 혹은 별관에 수용되지만 공공건물의 전체적 건축계획에 도서관이 고려되고 있다. 즉 도서관은 시정활동의 뚜렷한 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백주년 기념행사는 도서관들이 오래동안 준비한 유일한 축제일뿐만 아니라 문학적 역사적행사와 지방특유의 행사가 기념되었다. 어떤 도서관들은 지방 학교, 클럽이나 단체와 함께 문학의 주간행행(matinees)을 조직 하였다. 사회의 새로운 사업이 소개되었을때에는 도서관이 보

통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중과 신문에게 먼저 알려 주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도서관은 다른 단체 뿐만 아니라 문화 단체와 그리고 지방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리고 요직의 인사들도 도서관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정보를 구할수 있는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또 학교와 도서관 사이에는 언제나 상호 협조가 잘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학기의 학교계획은 자기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세워질뿐만 아니라 또 각 연령에 적합한 문헌을 제공하는 지역 도서관도 방문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방문은 학기초에 있으며 이것은 국민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그 이상의 상급학교에서도 행해지고 있는것이다. 이 방문에서 중요한 점은 각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재학시에 적어도 한번(두번쯤이 좋겠지만) 도서관과 친숙해지는 기회를 갖게 하고 안내자로서 한 관계직원을 알도록 한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도서관의 존재와 또 도서관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기회를 알게 된다.

자동차 문고(book mobiles)는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이것을 개척한 도시나 지역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점의 실제적 경험은, 증가하는 도서관 이용과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P. R.로서 다른 모든 도서관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핀랜드의 신도서관법은 도서관이 자동차 순회문고 봉사를 하는데 뚜렷한 후원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장래에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약속할 것이다. 병원과 자선

기관의 도서관들도 현저한 발전을 하고있고 신도서관법이 다른 종류의 도서관에 대해서 보다 이것에 많은 재정적 후원을 허용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병원의 도서관을 알게 되었다가 계속하여 도서관 이용을 많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도서관의 음악실이나 미술실 같은 특별부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고로 도서관 방문객의 통로는 대개 이러한 특별실을 통과하게 마련하고 있다.

도서관과 도서관 자체의 문제에 관하여 각종신문, 간행물과 라디오가 주의를 하게되었으며 텔레비전은 많은 시청자에게 도서관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도서관이 매스메디아(mass media)에 의하여 대중에게 주의를 받게되면 될수록 도서관과 도서관봉사는 시민들에게 주어질 중요한 이익으로써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1962년 4월 1일부터 발효한 신도서관법은 최근 3년간 핀랜드 신문들의 중요한 논설제목이 되었다. 이것은 이 법이 현저하게 일반적 도서관활동과 동시에 중앙도서관, 병원, 자선단체를 위한 도서관을 설치한 다든가 현존하는 도서관에서 자동차순회 문고 봉사와 시청각 자재로 시설하는등의 특별활동에 더 많은 자금을 특히 전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우리는 사실 신속한 발전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핀랜드 각지역의 신문들은 오래동안 기대하여 왔던 이 법에 의하여 생긴 발전상을 밝혀 들어냈고, 따라서 진보된 도서관 사업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은 출판된 많은 적절한 자료를 기꺼히 제공하여 왔는데, 그중에는 새로운 사업에 관한

뉴스, 증가하는 도서관 이용의 통계 도서관의 새로운 건물이나 분관에 관한 소개, 도서관간, 아동들을 위한 특별독서사업이나 도서관을 방문한 중요인사의 소개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최근 도서관은 매스미디어에 중요화제를 제공하고 라디오 프로에서 실제적인 도서관 문제가 토론되었으며 때때로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도서관생활을 잠깐 살펴볼 기회를 가지는데, 가령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시간이라든가 명사들이 자신의 문학취미를 이야기하는 시간등도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도서관들은 또 교육기관의 도서관 증설 계획이나 어떤 단체나 클럽과 함께 친목회(socials)를 조직하려는 기도를 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활동은 다소간 분산되었고 그 지역의 특수조건에 많이 의존한다. 도서관 운영의 다방면의 발전은 벌써 많은 대중에게 도서관이용을 장려하였다.

활동분야와 여러가지 새로운 업무의 확대와는 별도로, 도서관은 대중의 독서취미를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 하였다. 큰 도서관에서의 비전문적인 일은 점점 더 사무직원에게 주워지고 전문적도서관원들이 개인지도와 안내를 포함하여 참고업무(reference work)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적좌담회나 전시회가 열렸고 각종 목록들이 편찬되었고, 연구씨클이 구성되고, 음악회나 토론회를 포함한 특별한 모임들이 열렸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도서관들은 동화시간이라든가 알아마추기 시험(Information Contest) 혹은 클럽모임등을 포함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개인지도의 목적은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독서목록을 수집하거나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연마시키는 것을 돕는다. 또 그 취지는 개인의 지능적 수준과 소양에 따라서 독서취미를 지도하는 것이다. 천연색 사진과 시청각자재(視聽覺資材)를 갖춘 서적전시회나 좌담회는 흔히 새로운 열람자를 유치하고 그들을 새로운 분야에 흥미를 갖게 한다. 이렇게 도서관은 열람자들에게 상이한 여러 문화지역과 연대, 상이한 민족과 지역 혹은 예술이나 과학의 특별분야와 현실적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생긴 관심은 대단히 큰 것으로 증명되었는데 이러한 전시회와 관련된 특별서가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은 곧 대출되어 나간다.

도서관 방문객의 관심을 넓히기 위하여 도서관원들은 특별한 제목에 관한 독서목록이나 여러나라의 문헌의 저서목록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도서관의 대출계에서 상시로 구할수 있는데 이 책들을 뭉칠수 있는한 다채롭고 매력있게 만들기 위하여 장정(裝幀)이라든가 인쇄에 특별한 주의가 가해져서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것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던 더욱 그러하다.

연구씨클의 목적은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공동사회를 만들고 또 이 공동체를 위한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일반적문제를 토론하고 새롭고 다른 사상(idea)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곳의 토론은 보통 짧은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행해진다. 개인은 때때로 자기환경에서 자기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타인을 발견 하지 못하는데, 이러

한 경우에 도서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 연극, 소설, 철학, 음악과 미술 같은 화제가 이런 연구씨클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분야의 최근 경향이 나 역사적 발전을 개관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임의 제목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토론되고, 시인 작가 예술가 과학자들이 이 씨클에 초대되어 자기들의 일에 대하여 연설하고 있다.

제일 나이 어린 열람자들을 위해서 그림책시간을 두어 어떤 책의 내용을 짧게 주된 형태나 그림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보다 나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적절한 시청각재료를 포함하는 동화시간을 제공하는데, 이야기 자체는 상이한 국가와 민족을 나타내고, 화제는 고전적 동화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서도 택해진다. 이야기의 윤리적가치가 항상 강조되어 왔고 어린이들의 지능을 증진하고 그들의 흥미분야를 넓히기 위하여 도서관은 매학기에 알아마추기 시험을 한다. 여기엔 가능한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상이한 여러 국가와 민족, 별과 성층권, 자연의 신비, 탐험대 혹은 다른나라와 쾨펜드의 역사등이다. 이 알아마추기 시험에의 참가열은 대단하고 3우수자에게 상으로 주는 유익한 책같은 것은 좋은 자극제의 역할을 한다. 특히 인구가 많은 중심지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모임은 지대한 관심을 모으는데 도서관은 젊은이들의 관심을 여러 다른 지식분야로 이끄는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임의 프로그램은 될수 있는대로 다방면의 것을 포함하여 공학과 과학의 최신발명, 상이한 국가, 민족, 문화영역의 대표적 특징등 여러가지가 된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도서관 열람자가 되도록 장려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비평적 입장에서 보면 상술된 새로운 도서관활동들은 지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건물, 도서관분관, 자동차순회문고와 같은 새로운 봉사, 병원에서 도서관업무, 음악같은 특별부서를 설치하는 것등 모든 것들이 도서관의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나 혹은 알아도 도서관에 드나들 정도로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도 도서관이 알려지게 하였다. 시영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이때까지는 극히 모호하고 특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도서관사업을 선전(Selling)하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은 극히 괄목할만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독서 취미는 흔히 신문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신문이 도서관에 대한 적극적 태도없이 그들은 결코 도서관과 접촉을 맺지 않게 된다. 활자화되는 도서관 뉴스가 열만큼 도서관 이용에의 우선적 암시를 주는가를 평가하기는 거의 곤란하지만, 이야기되고 인쇄대상이 되는 제목들은 적어도 어느정도까지는 좋은 광고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도서관과 도서관 활동에 관한 정보를 클럽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일은 상당히 효과적임이 증명되었고 또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도서관에 관한 강습을 받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도서관강습은 매학기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때문에 재학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도서관과 그의 성질에 관하여 알 기회가 주워 있으며, 이러한 강습이 잘 조직되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결과는 사실로 가치있는 것이 될 것이다.

독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취미를 발전시키고 또 깊게하는 것은 대개 개인지도에 의한다. 어떤 특정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어떤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서전시회는 그들의 독서취미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지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적당한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회가 대단히 효과적이고 고무적이다. 독서목록이나 저서목록집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직접적으로 쉽게 책을 구할수 있는 전시회는 사실상 독

자에게 더 배력을 준다. 연구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관심을 지지하고 더 깊게 하는데 적당하다. 만약 연구자들의 모임이 주간행(matinees)처럼 준비되었다면 유명한 작가, 시인, 예술가, 과학자외의 개인적 접촉은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줄것이다. 동화시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신비스런 여러나라와 민족을 알게 할 것이며 알라마추기시합이 취미의 영역을 넓히는 절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동시에 이것이 넓고 다방면에 걸친 인간의 지식에 서광을 주면서, 대중의 독서취미를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드디어 出刊!

「學術雜誌索引 1960」

頒價 950원

會員 800원

外國 1,560원(\$ 12. 00)

4·6倍版 模造洋裝의 豪華版!

國內의 各種學術誌 221種, 總 10,230項目이 索引된 本書는 研究 및 調查活動에 必備의 案內書이다.

總供給處

韓國圖書館協會 內 學術雜誌索引供給所

서울 小公洞 六 (국립도서관 구내) 2-4864